박태원 교수의 46

불교로 보는 인생

청소년의 종교교육

특정종교 주입식 교육 감수성 계발 장애요인

올해 대학생이 된 조카가 유치원 다닐 때의 일이다. 아직 한글도 깨우치기 전에 입만 열면 동심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을 놀라운 시어(詩語)로 자아내는 것이 너무도 신통하여 집안팎의 사랑을 한 몸에 담던 꼬마 숙녀. 이제는 저도 개성 있는 한 세상이 되어 매사에 자기 의견 분명한 성인이지만, 그 때야 정말이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마음 놓일 여리고 귀여운 싹이었다. 하루는 밥상 앞에 앉아 나를 보며 하는 말이 신경을 건드렸다. "삼촌, 이 밥 누가 준 줄 알아?" "응? 누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준거래. 비도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고 천둥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래."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래? 그 선생님이 너희들 재미있게 가르치시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보호해 주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랴, 횡설수설 말이 길어지고 있었다. 조카가 돌아간 뒤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유치원에 전화 걸어 원장 선생님을 찾았다. 사정을 설명드린 후 내 생각을 전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특정 종교 언어로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과학적 의문, 문학적 상상력, 윤리적 감수성, 합리적 사유 능력의 기초를 계발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종교적 선택은 충분한 사고력을 갖춘 후 스스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얼른 문제점을 납득해 준 원장 선생님의 조치가 뒤따라 그나마 다행이었다.

울산대 철학과에서는 2년 전부터 방학 때마다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철학교실'을 개설해 오고 있다. 올해 하계 교실도 높은 호응 속에 선발된 100여명의 수료생을 막 배출하였다. 이번에는 '영화로 본 철학(와호장룡과 동양사상)' '문학 속의 철학(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남녀 차별과 평등' '생명 윤리와 임신중절의 문제' '추측과 반박의 방법' 등 10개 테마가 개설되었다. 테마 중심의 '철학 교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넘는 것이어서 큰 보람을 맛보고 있다. 이 철학 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얼마나 균형 있고 수준 높은 사색의 기회를 갈구하고 있는지 절감하는 동시에, 그 엄청난 교육비가 정작 삶의 질서와 깊이를 스스로 마련해 갈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과는 무관하게 쓰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확인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갖추어 주려는 교육적 노력은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 그들에 대한 종교 교육은 어떤 내용이어야 바람직할까? 스스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계발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된 종교 언어에 일찍이 갇혀버리면 생명은 자칫 굳어지기 일쑤. 그 경직을 풀어 다시 유연한 생명의 건강으로 돌이키려면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강한 전도 열정으로 원색적으로 진행되는 조기 종교 교육은 그처럼 간과할 수 없는 후유증을 안기 쉽다. 인간의 합리적 탐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종교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특정종교 주입식 교육

감수성 계발 장애요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유익한 삶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윤리 감각과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정도면 좋겠다. 다양한 삶의 길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그 말랑말랑한 마음을 오히려 딱딱하게 만드는 종교 교육은 피해야 한다. 그들에 대한 종교 교육은 인류가 소중하게 축적해 온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들에 대한 감수성을 계발시켜 주는 수준이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불문(佛門)이 밝히는 그 탁월한 합리적 보편의 길은 그래서 더욱 돋보인다.

방학이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겨냥한 종교단체들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풍성해진다. 그 교육이 특정 종교 언어에 대한 맹목적 신념의 주입이 아니라, 풍요로운 인간 관계를 위한 몸과 마음의 예절을 익히는 보편적 수신(修身)의 도량이었으면 한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재가불자 팔관재 실천 '자기점검'

참불자의 길 재일(齋日)

◇정기적으로 사찰에서 봉행하는 재(齋)에 참가해서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바로잡자.

출가수행자들과 달리 재가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일상을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주변에 닥쳐온 갖가지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삼보를 찾고, 가난한 이웃도 돌본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가불자들의 삶은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출가자들의 삶에 정기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육재일(六齋日)을 도입했다. 재(齋)라는 것은 범어 우포샤타(uposadha)를 한역한 것인데, '삼가다, 부정을 피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일정한 날에 계율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육재일은 부처님은 한 달동안 최소 6일은 꼭 계를 지키며 청정한 생활을 하도록 했다.

재가불자들이 단순히 부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가수행자들의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편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 육재일이 바로 오늘날 행해지는 불교의 각종 재일의 시초가 되었다. 육재일은 매월 음력 3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인데, 이 재일에는 하루 24시간 동안 재가불자들이 여덟가지 계를 지켜야만 했다. 여덟가지 계는 팔관재(八關齋)라 하는데, 재가 오계에다 '높고 넓은 침상을 쓰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 일부러 구경하지 않으며 향수 등을 바르지 않고, 정오가 지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의 3계를 더한 것이다.

육재일을 살펴보면 부처님 시대에 재가불자들의 신행이 얼마나 철저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세속의 일에 끄달리며 살아가는 재가불자라 하더라도 7~8일 간격으로 출가수행자들의 생활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참 불자로서의 자기 점검과 출가수행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귀의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율장〉에서도 '팔관재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바새가 될 수 없고, 우바이도 될 수 없다'고 하여 재가불자들이 철저히 재일을 지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심지어 재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재가불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정도였다.

이같은 육재일의 불교 전통은 점

출가자의 삶 본받아 철야정진-일일출가

차로 변하여 십재일로 되었다. 십재일은 육재일에다 1일, 18일, 24일, 28일을 더한 것으로 각 재일에 특정한 불보살을 배대(配對)하여 의미를 부여했다.

1일은 정광불, 8일은 약사불, 14일은 보현보살, 15일은 아미타불, 18일은 지장보살, 23일은 대세지보살, 24일은 관세음보살, 28일은 비로자나불, 29일은 약왕보살, 30일은 석가모니불이다. 이를 십재일불(十齋日佛)이라고 부른다.

이 열가지 재일 중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지켜지고 있는 재일은 18일 지장재일과 24일 관음재일이다. 관음재일이나 지장재일의 의식은 〈천수경〉을 독송하고 각각 〈관음예문〉과 〈지장예문〉, 그리고 정근과 발원의 순으로 행해진다. 관음재일에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구하는 예문과 정근을 한다. 지장재일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발원과 정근을 한다.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것이다.

불교의 재일은 단순히 기도나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출가의 삶을 본받아 정진하는 정진일이다. 이같은 재일의 본래적 의미와 가르침을 오늘에 실천하기 위해서 재가불자들은 매주 1회 법회에 참석하거나, 보름 간격으로 철야정진이나 일일출가를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불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은자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㉔ 장제형에 대한 답서

알음알이의 길 끊어지면 모두가 진리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사대부들은 도(道)를 배우려라도 대개 진실한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 도를 논하고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곧 망연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좋은 곳임을 믿지 못하고, 다만 마음 속에서 꽉 붙잡고 생각으로 헤아려 도달하려 하며 괄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누어 보려고 할 뿐, 그것이 잘못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과거와 미래를 끊어버릴 수 있다면, 마음 속 알음알이의 길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만약 마음 속 알음알이의 길이 끊어지면,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모두가 진리이며 대해탈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리지만 않으면 매 순간 매 순간 접하는 모든 경계가 도 아닌 것이 없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도와 하나 되어 있으면서도, 생각으로 상(相)을 만들어 그 상에 머물기 때문에 도와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공부의 핵심은 도를 깨닫는 것이지만, 이것은 곧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식인은 생각으로 헤아려서 생각을 그럴듯하게 구성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인이 도 공부에서 부딪히는 장벽은 당연히 생각이라는 장벽이다. 물론 지식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이라는 장벽에 부딪히지만, 지식인에게 그 장벽은 특히 높다. 생각하는 일이 바로 지식인의 일이기 때문이다.

즉 지식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모두 생각을 통하여 해석하고, 생각 속에서 관념적으로 세계를 재구성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도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써 따질 수도 없다는 말을 들으면, 지식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자신이 딛고 있던 발판과 잡고 있던 손잡이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평소에 의지하고 있던 발판과 손잡이를 버려서 곧 의지할 곳 없는 골짜기로 굴러떨어질 듯이 불안한 이 상황이, 사실은 도(道)에 들어가는 문. 앞에 당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발판과 손잡이를 과감하게 포기해 버리고 죽기를 무릅쓰고 허공 속으로 뛰어들어야 비로소 도의 문을 들어서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만약 여기서 용기가 없어서 다시 과거의 발판과 손잡이를 찾아 의지한다면, 영원히 도의 문을 들어설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지식인은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의심해 보고 헤아려 보아서 안심이 되어야 비로소 행동하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 관문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되돌아 물러서 버리고 만다. 이것이 지식인이 도를 깨닫기 어려운 이유이며, 또한 지식의 비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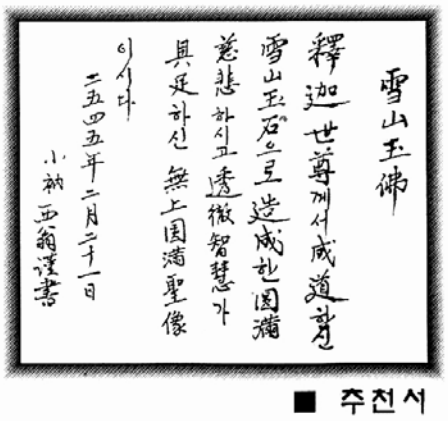
아직 도를 모르는 범부에게 도의 세계는 낯설고 새로운 세계이다. 이 낯설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과거에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을 포기해야 한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든가, 한번 죽어서 부활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과거에 의지하고 있던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은 곧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거를 발판삼아 미래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여 머물며 미래를 욕망한다. 이처럼 과거에의 집착과 미래에의 희망은 모든 범부들이 의지하는 손잡이요 발판이다.

그러나 도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런 손잡이와 발판은 버려야 한다. 즉 도의 세계에는 지금 이 순간 여기의 존재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함에는 어떤 종류의 해석이나 관념적 구성물도 필요하지 않다. 바로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글을 읽는데 무엇이 모자라는가?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데,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할 필요가 있는가? 보고 듣고 인식하는 상(相)을 따라 분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의 존재에 아무 부족함도 없음을 알 수가 있다. 부족함이 없으니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없고,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없으니 바로 대자유의 해탈이다.

http://www.mindfree.net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 추천서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